

새 시대의 새 음악학

— 음악학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채 현 경

1. 들어가며

미국의 음악사학자 팔리스카는 “모든 예술 중에서 음악을 학문 분야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학자들이 음악의 문제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곧바로 사회과학, 철학, 문학, 역사와 같은 인접 학문 분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¹⁾라는 고백을 한 바 있다. 음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기어츠 1973)는 음악 그 자체뿐 아니라 그 음악을 공유하는 인간과 사회문화라는 큰 맥락 안에서 연구되어야 하며, 음악학은 태생적으로 학제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학문이다. 지난 20-3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음악연구의 방법론에 대한 활발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 논쟁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ontological) 질문에서부터 음악연구의 방법론(methodological)에 이르기까지 음악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들에 관한 것이었다. 서양예술음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음악의 정의에 대

1) Claude V. Palisca, “Reflections on Musical Scholarship in the 1960s,” *Musicology in the 1980s: methods, Goals, Opportunities*(eds. Kern Holoman & C. V. Palisca), New York: Da capo Press, 1982, 12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study of music, of all the arts, is the most difficult to circumscribe as a discipline. As soon as scholars probe its problems with any depth, it spills into neighboring fields-social sciences, philosophy, literature, and history.”

해 “음악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²⁾라는 혼란스러움이 공개적으로 공표되고 있다.³⁾

전통적인 음악학이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온 방법론들도 재고되고 있다. 즉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음악’을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인지 음악을 중심에 놓고 질문하던 종전의 과정이 이제는 도대체 우리가 음악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를 전제로 하여 ‘뒤집어 생각해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다른 학문에서 방법을 가져와 ‘다른 길을 가보기’도 하고, 연구의 ‘지평을 넓혀보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들은 현재 새로운 유형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동안 잘못 생각한 것 또는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며 음악연구의 방법론을 “다시 생각해보자”(rethinking, 볼먼 1998)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음악학과 관련하여 권위 있는 목소리를 가졌던 학자들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제까지 서양예술음악만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음악학의 정의와 규범이 ‘다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음악학은 항상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해왔다. 음악학이 독일에서 태동할 당시에는 과학 만능의 시대로 음악학은 음악을 ‘과학적’(Wissenschaft)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되었다. 당시로서는 음악을 이성과 반대되는 감성에 의거한 예술 활동으로만 간주했기에 음악을 학문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 과학적인 접근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인류학자들이 대거 음악연구에 참여하는 1960~70년대에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득세와 함께 음악사전들은 음악학을 ‘학문적’(scholarly)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한다. 융합 또는 통합(integrative)⁴⁾의 시대(채현경, 1999, 2000, 2007)를 맞아 다양한 음

2) Philip V. Bohlman, “Ontologies of Music,” *Rethinking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17쪽.

악들이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연구되면서 전통적인 음악학이 해체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전통적인 음악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큰 혼돈의 시대’일 수도 있으나, ‘다시 생각하기’를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학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을 도모할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점에서 서구 음악학의 주변에서 그 변화를 주시해온 비서구권 학자로서 필자는 다시금 음악학이란 무엇인가를 물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음악학의 정의로 우리 음악학계에 음악학을 학문의 한 분야로서 처음 자리매김하게 한 이강숙의 “음악학이란 음악 전체에 대해 언급을 하는 학문”⁵⁾이라는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음악에서 ‘전체’란 과연 무엇인가? ‘전체’에 대한 ‘언급’은 어떻게 즉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전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어떻게 언급하느냐는 방법론이 결정되는 것이고, 언급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나에 따라 전체가 결정되기도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전체와 언급의 범주가 제한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한다. 음악, 전체, 그리고 언급은 ‘음악학’이라는 한 가족을 형성하며,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가족의 건강상태와 만족도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들은 가족 고유의 공동 목표와 가치를 갖고 다른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를 만들며, 각기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 큰 공동체를 이룬다. 나는 이 글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 시대에 건강하고, 행복한 꿈이 있는 즉 오늘보다는 더 나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맞는 음악학 가문을 만들기 위해 ‘전체’와 ‘언급’에 대해 생각하며, 새 시대의 음악학을 생각해보려 한다.⁶⁾

4) 여기서 통합은 음악학의 두 진영인 역사학과 인류학의 융합은 물론 다른 학문과의 학제적 연구를 통한 음악 전체를 보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나 통합의 과정에서 음악연구의 어느 한 분과, 또는 다른 학문 중 한 분야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다양한 접근법이 동등하게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필자는 그 어원에 ‘편견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integrative musicology”를 주창한 바 있다.

5) 이강숙, 『한국음악학』, 서울: 민음사, 1990, 27쪽.

2. '전체'와 '언급'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먼저 전체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과연 음악에서 무엇이 전체란 말인가? 우리는 음악에 대해 크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의 두 범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내적인 것은 음악 그 자체이다. 문학 비평의 언어를 사용하면 '텍스트'이다. 음악 외적인 것은 간단하게 정의하면 컨텍스트인데, 음악에 있어서 소리의 현상만이 아닌 그 외의 것들, 즉 작곡가의 생애, 그의 음악에 관한 미학/철학적 관점, 시대적 배경, 사회문화적 맥락 모두를 포함한다.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이유는 텍스트 그 자체에 관한 정의도 음악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기보된 악보는 연주자들은 물론 연구자들에게도 문자화된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절대적인 가치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기 실증주의 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던 본문 연구(textual study)에는 기록된 필사본이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

그러나 텍스트 즉 악보가 시대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가졌으며 실제로도 다양하게 쓰였기에 음악의 모든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난 후에도 19세기의 산물인 연주자와 작곡가의 분리로 인한 악보의 절대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아직도 습관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구진된 음악을 제외하더라도 기보된 음악에서 악보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음악 현상들의 문제들이 여전히 음악 내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음색(timbre), 호흡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절법(articulations), 오선지로 기보될 수 없는 미세한 리듬의 불일치(discrepancy)와 음정의 불확실성(inflections) 등이 좋은 예들이다. 어쨌

6) 이 논문에서 우리에게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자체가 다양한 논점을 함축하고 있기에 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와 언급에 관련되어 논의되는 쟁점들은 현재 우리 문화권에서 음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음악에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서술했다.

든 음악 내적인 것은 작곡가가 그 시대의 양식에 부응하여 또는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특정한 작곡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당대의 음악적 기술(technique)들을 이해하는 이론과 분석을 통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에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러나 외적인 것에 대한 정의와 그것에 대한 음악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수용은 훨씬 더 논쟁적이다. 그동안 서양예술음악 진영에서는 시대적 상황과 작곡가의 생애 및 음악에 대한 미학/철학적 개념 정도를 외적인 것으로 수용해왔다. 그래서 음악사학자들은 왜 음악연구에 컨텍스트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고 대답한다. 역사학과 인류학에서는 여전히 컨텍스트를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기어츠(1984)는 “예술과 그것을 이해하는 도구는 같은 공장에서 만들어 진다”⁷⁾며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없이는 그 문화가 형성해 놓은 예술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악을 명백한 문화적 산물(artifacts)로 간주하며, 음악 서술에 심층적인 서술(thick description)을 주요 방법론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톰린슨과 같은 역사학 진영의 학자들은 “인간 개개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발생한 문화적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적어도 서양예술음악 안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피력한다. ‘전체’에 대한 역사학과 인류학 진영의 개념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사 단조>를 예로 들어 종전의 음악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얘기해보자. 이 교향곡은 특정한 음악적 자료에 의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회의 특정한 사회 일원에 의해 작곡된 특정한 작품이다. 누구나 여기까지는 동의한다. 그러나 음악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는 이는 교향곡이 그것의 외적인 사고와 감각들에 의해서 각인된 또는 참조하여 만들어진 외적인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생각에

7) Clifford Geertz, “Art as a Cultural System,” *Modern Language Notes* 91, 1984, 94-120쪽.

의구심을 갖는다. 또 다른 이들은 우리가 그 곡을 이해하기 위해 교향곡의 음악적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 이상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던진다. 그들은 그 곡은 모차르트가 살던 당시의 문화적 가치(value), 상상(suppositions), 그리고 사고(thought)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쉽게 받아들여졌을 문화적 유물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 작품을 역사적인 사실로 이해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⁸⁾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연구자나 학계가 알고 싶은 만큼 또는 듣고 싶은 만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간단한’ 얘기를 알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깊고’, ‘깊이 있는’ 모든 이야기를 하고/듣고 싶은지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결국 알고 싶은 만큼만 알게 되는 것이다. 서양음악 학자들은 자기 문화의 음악을 연구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전체를 이해/서술하는 것에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문화내부인으로서 그들이 연구하는 생산품의 문화적 이해에 대한 필요성을 덜 느끼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제 더 이상 서양과 동양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동양을 하나로 볼 수 없듯이 서양도 하나의 균일한 문화권으로 이해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음악을 연구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한다.⁹⁾ 간단히 서양예술음악사를 되돌아보더라도, 유럽대륙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영국의 음악은 대륙과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으며, 대륙 안에서 서구 음악의 변화를 주도해온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역시 각기 고유한 음악문화를 창출해왔음은 자명하다.

8) Gary Tomlinson, "The Web of Culture: A Context for Musicology," *19th-Century Music*, Vol. 7, No. 3. 1984, 351쪽.

9) 이 문제는 서양예술음악과 관련된 주요 논쟁 중의 하나로 모든 것을 단순하게 보는 이분법적인 맥락으로는 이해될 수 없으며, 또 다른 논문의 주제로 다루어야 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은 유보하기로 하겠다.

더구나 서양예술음악을 연구하는 비서구권의 음악학자들에게는 아무리 서양예술음악이 그들의 주요 음악언어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소리의 현상으로 접한 음악문화이었기에 음악연구에서 전체 이야기를 알고/듣고 싶다면, ‘문화적’ 또는 ‘사회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이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해 조직화된 존재”(블래킹 1973/1998)로서 인간의 주요활동이고, 인간 역시 음악과 함께 각 문화 안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이라면, 문화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악연구를 하는 비서구권의 학자들에게 문화적인 맥락에서 음악을 들여다보는 것의 필요성은 논쟁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체를 보는 시각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구의 경우에는 음악을 내적인 것만이 아니라 외적인 것을 포함하여 심층적으로 보고 언급하는 것이 다양한 논쟁의 과정을 거쳐 이제는 교육의 현장에서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 보인다. 현재 우리 음악교육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음악사 저서¹⁰⁾도 이제는 “음악을 위한 컨텍스트 또는 컨텍스트 안의 음악”(Music for/in context)이라는 부분을 신설하여 음악 외적인 요소들인 음악과 관련된 연주상황과 악보 출판, 후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작곡가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연주되던 배경과 관련된 일차적인 자료들을 원전읽기(source readings)라는 항목을 만들어 독자들이 일차 자료를 수월하게 직접 해석할 수 있도록 전달 방식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미시사(微視史)와 젠더 연구가 주요 화두로 등장하면서 여성 음악가들이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작곡가들의 작품과 생애가 기존의 위대한 작곡가들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음악의 ‘안’과 ‘밖’을 모두 언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산적해 있다. 팔리스카가 주장한 대로

10) Burkholder, J. Peter, D. J. Grout, & C.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 (7th. ed.), New York: W. W. Norton, 2006.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으로 번역되어 2007년 출판되었다.

컨텍스트를 서술하는 방법을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빌려오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과연 우리의 교육과정이 ‘언급’의 능력을 키워주고 있는가? 전체가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음악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틀은 어떻게 제시될 수 있는가? 필자는 우리가 앞으로의 연구자들에게 안이든 밝이든 아니면 둘 다이든 간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서구의 학자 코스코프(1998: 558)도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학의 지형도를 주시하며, 음악학자/교육자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정전과 가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미로 속에서 음악과 사람들이 다양한 것처럼 모든 다양한 가치들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정당한 의미를 지닌다는 기본 철학을 가지고, 자신만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¹¹⁾고 주장했다.

한국음악학회의 가을 학술대회(2008년 11월 15일)의 주제인 ‘새 길을 묻다’는 학자들이 서로 말을 섞으며 음악학의 최근 변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하는 학문의 장이었으며, 학생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의 장이었다. 서로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이 음악을 ‘다양하게’ 또는 ‘다르게’ 생각해보며, 각기 전체를 어디까지로 보고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시대와 문화를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 전통적인 음악연구의 방법론을 ‘빼딱하게’ 비껴가는 언급들, 그리고 다양하게 전체를 언급하는 전달 등을 통해 서로에게 음악연구의 새 길을 물었다. 그러나 여기서 ‘새 길’은 결코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뒤를 돌아보며 어떻게

11) Ellen Koskoff, “What Do we Want to Teach When We Teach Music? One Apology, Two Short Tripsm Three Ethical Dilemmas, and Eighty-Two Questions,” *Rethinking Music*, 558쪽. 원문은 다음과 같다. “We should be helping our students discover their own paths through the maze of all possible canons and values, past, present, and to come-with an underlying bedrock philosophy that all values, just like all people and all musics, have equivalent meaning to someone, somewhere.”

앞으로 나아갈 것 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구상해보자는 뜻이었다.

3. 음악학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앞으로의 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필자는 서양의 음악학이 1980년대 초반 학계¹²⁾와 언론에 소개된 이후 1988년에 창간된 우리 음악학계 최초의 학술지인 『낭만음악』에 발표된 지난 20여 년간의 논문들을 살펴 보았다.¹³⁾ 20년간 총 800여 편의 글이 출간되었다(표 1 참조).¹⁴⁾ 그 중 논문이 300여 편이었고, 평론이 약110편, 자료가 90여 편, 번역이 약80편, 그리고 신작이 50여 편 발표되는 등 매우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서양음악 분야는 모든 시대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낭만시대와 20세기가 두드러진다. 또한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작곡가연구와 한국 전통음악은 물론 아시아 음악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는 등 그 영역 또한 방대하다. 음악학의 영역도 다수의 미학, 철학, 그리고 편사학을 비롯한 기본 학문은 물론, 실용적인 분야인 예술 경영에서부터 연주와 관련된 역사적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음향인지와 교육까지 정말 다양하다. 음악학의 한 세부분야로서의 당위성이 문제였던 비평(criticism)의 비중이 큰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 비평의 대상

12) 1981년 ‘음악이론’이란 명칭 하에 음악학은 대학의 전공으로 처음 개설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음악대학은 그 전통에 따라 연주가 아닌 경우 모두를 포함하여 음악이론이라 칭하고 있어 순수 이론과 음악학의 구분에 혼란을 야기한다. 이 문제 역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13) 다양한 학술 활동 중 학술지로는 『낭만음악』을, 그리고 연례 학술대회로는 서양음악학회를 선택한 것은 지면상의 문제도 있지만, 『낭만음악』이 최초의 학술지라는 점에서 그리고 서양음악학회는 유일하게 서양음악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 서구의 음악학과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14) 이 조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음악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의 안지혜가 석사과정을 마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소논문 작성을 위해 수행한 것이다.

또한 연주비평을 으뜸으로 저서, 음반, 문화와 더불어 학술대회에 대한 보고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하다. 서구의 경우에서 커먼(1985/2006)이 음악연구의 주요기능인 음악의 감동을 전달하는 주요 도구로서 비평을 강조하며 그동안 비평을 잠문으로 보는 서구의 편견을 신랄하게 비평한 것과는 대조적이라 하겠다. 1년에 4회 출간되는 『낭만음악』은 통합 음악학의 산실로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가장 총괄적인 학회지의 역할을 해온 것이다. 현재 우리문화권의 학술지들은 대체로 두 종류로 분류될 수 있다. 부산에 자리 잡은 민족음악학회(1990)가 발행하는 등재지 『음악과 민족』이나 『낭만음악』과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는 학술지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세계음악학회(1999)의 『음악과 문화』와 한국음악학사학회(1988)의 『한국음악학사학보』는 각각 세계음악 연구의 전반적인 경향과 한국 전통과 현대음악의 역사를 중점으로 다루는 특성화된 학술지를 표방한다.

1998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 동안 서양예술음악만을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연례 학술대회를 개최한 서양음악학회의 주제들을 서양예술 음악학계를 대표하는 미국의 미국음악학학회(AMS)의 주제들과 비교해보았다. 먼저 서양음악학회의 학술대회 주제들을 보면 최근 음악이 그 틀을 확장하며 학제적인 연구가 대세인 것을 반영하여 ‘음악과 인접 학문’(1998)으로 시작한 다음 ‘음악분석의 제 문제’(1999)를 다룬다. 연이어 채택된 ‘종족음악학의 제 문제’(2000)와 ‘음악과 여성’(2001)은 개괄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하더라도 현재 서구의 관심사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모차르트의 모든 것’(2002)은 처음으로 한 작곡가의 음악을 전체적으로 조명한 노력의 결실이다. 2003년 이후에는 ‘아도르노와 현대 음악’(2003), ‘17세기 서양음악의 이해’(2004), ‘음악과 문학’(2005), ‘바로크시대의 종교 음악/음악과 인간의 상호작용/18세기 음악 후원 문화’(2006), ‘음악전문 기술과 그 발달/20세기 음악의 이론과 실제’(2007)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대체로 서구의

역사음악학이 다루는 주제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미국음악학회가 이미 20년 전인 1985년의 다른 학회와의 공동학술대회에서 서로 다른 시기의 예술음악들이 12%에서 20%로 균형 있게 포함되는 가운데 자국의 음악을 4% 정도로 다룬 것에 비하면, 서양음악학회는 서양음악의 어법으로 작곡된 자국의 음악에 대한 세션을 거의 갖지 않은 것이 차이라 하겠다.¹⁵⁾ 미국음악학회의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자국음악에 대한 관심은 21세기에 출판되는 일반 서양음악사 저서에 미국의 음악과 음악가들이 유럽의 음악과 음악가와 함께 대거 포함되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는 지난 20-30여 년간의 음악학의 활동을 보며, 이렇게 짧은 시기에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된 것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위에 언급한 큰 틀만을 본다면, 우리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학술지와 학회활동을 통해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제도권의 음악학은 왜 아직도 정체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필자가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지 이제 12년이 되어간다. 그 기간 중 4년간은 여러 대학을 전전하며 이른바 보따리 장사라는 강사 생활을 했고, 또 정확히 5년간은 지방 신설대학의 수장을 맡아 학교 만드는 일만 생각하다 음악학 전공을 만들고 제1회 학술대회를 연 다음 서울로 올라와 이제 4년을 마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곳저곳에서의 충돌을 통해 우리의 실정을 몸으로 느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지방에 신설한 음악학은 필자가 떠나자마자 폐지됐고, 현재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학교

15) *AMS Newsletter* (August 2008), Vol. 38, no. 2,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p. 2. 다만 2006년 연례 학술대회가 아니라 제 40차 학술포럼에서 현대 한국음악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윤이상의 '유동'에 관한 연구가 변지연 박사에 의해 발표됐다.

의 학부에 음악학 전공을 만들려는 시도는 학과의 일부 동료교수들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나는 10년 넘게 음악학자들이 ‘음악학의 위기’¹⁶⁾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들어왔다. 오랫동안 민족음악학회를 이끌어왔으며 우리 문화권에서 유일하게 음악문화학과를 만들어낸 조선우는 음악대학에 학문적인 교과과정을 도입하여 연주 중심의 교육체제가 거듭나야 한다고 한국의 음악대학의 변화¹⁷⁾를 주장해왔다. 또한 필자 역시 하나의 음악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구 중심의 음악연구의 방법론만을 수용한 우리 문화권의 인식에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서구의 음악대학의 구성과 교과과정은 물론 음악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언급해왔다.

필자는 현재 한국의 음악대학은 교육과 행정이 한 축으로 상호 병행하여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교육적인 면에서는 음악대학 안에 음악 전체인 텍스트와 컨텍스트 모두를 들여다볼 수 있는 교과과정을 개설해야 한다. 새로운 교과과정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러한 과목들을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학과가 있어야 한다.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음악학 전공은 주인집(주로 작곡과)의 허락 없이는 자유롭게 그 체제의 틀을 변화할 수 없기에 자립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한 것이다. 서양음악이 한국에 들어온 지 벌써 1세기가 넘었다. 실기 위주의 음악대학 교과과정 및 운영방침 역시 수입된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서구, 특히 미국의 대학들로부터 음악의 학문적인 분야가 도입되고 있지만, 한국의 음악대학 체제는 그러한 변화를 외면하고 있다.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더라도 학과간의 이기주의에 의해 강하게 저지 또는 묵살되고 있다. 음악에 대해 생각하고 언급하는 훈련은 연주자에게

16) 채현경, 「우리음악을 위한 새로운 음악학-Integrative Musicology」, 『음악과 문화』 창간호, 세계음악학회, 1999, 13-30쪽.

17) 조선우, 「한국의 음악대학은 변해야한다」, 『음악과 민족』 제 21호, 민족음악학회, 2001, 9-15쪽.

도 매우 절실한 상황으로, 특히 서양을 모방만 해온 우리에게 새로운 음악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실기 중심의 한국의 음악대학이 당면한 문제들은 실로 산적해 있다. 예를 들어 서양음악이 한국에 수입된 지 1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한국산 연주인들을 키워내고 있지 못하다, 현재 소위 ‘한국을 빛낸 세계적인 음악인들’은 대부분은 서양음악의 본 고장인 서구에서 훈련을 받았다. 과연 한국에서 자란 연주자들에게 결여된 것이 무엇인가?¹⁸⁾ 요즈음 필자는 학교, 특히 음악대학이 음악 안에서의 세부 분야 사이의 경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반면, 정보화, 세계화시대를 사는 21세기의 학생들은 음악의 실용적인 측면과 학문적인 특성이 전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수 전공을 통하여 전문가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경우를 보았다. 당장 음악대학에서 음악 전체를 언급할 수 있는 학자들의 양적인 확장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본다. 단지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창의적인 우리 음악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말을 섞으며 갈 길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변화는 자체 내에서의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가운데 민주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재 10여개 대학에만 개설되어 있는 음악학 전공의 교육은 대부분 단 한 명의 교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많은 양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며 다른 학자들과의 교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구는 자연스럽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 특히 서양음악이나 세계음악을 연구하는 경우, 절대 시간의 부족으로 일차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현장조사가 거의 불가능한 가운데 우리 학자들의 연구는 많은 경우 애석하게도 박사학위 시점에서 멈추고 만다. 박

18) 요즈음 손열음, 김선옥, 신현수 등 한국에서 교육받은 연주자들이 유명 국제 콩쿨에서 1등을 차지하는 성과가 이어져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한 교육기관의 10여년에 걸친 국제적인 연주자를 양성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로 극히 한정된 예이다.

사학위판 연구의 시작 단계에 불과할 뿐인데 일부 젊은 학자들은 학위증이 연구의 마침표인양 선불리 권위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현재 교수들의 정년보장제도가 강화되며 논문의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차적인 자료를 사용하며 논문을 양산하는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오랫동안 실기 위주의 교육을 한 우리 문화권에서 음악학은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 같다. 음악 전체를 언급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음악학이 독립된 학과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가져야 포괄적인 교과목도 형성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다양한 교수들도 임용할 수 있다. 이는 한 대학에서 한 학과를 만드는 정도의 변화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커먼(1985)은 현기증 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음악학의 급격한 변화 안에서 오래 된 줄기는 흔들리지 않을 터이니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하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학자란 자기만의 조각을 연구하지만, 각각의 조각들은 다른 조각들과 마찬가지로 조각이불의 지속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만큼 제각기 훌륭한 것들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새 시대의 새 음악학을 세우기 위해 학회간의 연결망을 조직하여 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한국음악학 협의회 창립이 절실함”¹⁹⁾을 주장한 조선우의 생각을 받아들여 ‘음악학의 자리매김’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이제 또 다시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한다. 현재 한국에서 교육의 개혁을 주장하며, KAIST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는 서남표 총장은 “한국의 교육시스템은 큰 방향을 잃지 못하고 방법론에서 다투는 수준”이라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필자 역시 경직된 교육행정과 구조 안에서 우리의 음악교육 및 연구가 발전할 수 없음을 절감한다. 음악교육의 변화를 위

19) 조선우, 「한국음악학 협의회 창립이 절실하다」, 『음악과 민족』 제 24호, 민족음악학회, 2002, 5-9쪽.

해 한국음악학학회 혼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음악을 학문으로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한데 모여 서로 말을 섞으며 새 길을 찾고 대정부 설득과 대국민 홍보 및 교육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표1〉 낭만음악(1998~2008)을 통해 출판된 서술의 종류 분석 통계

논문 (302)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한국전통음악	근대음악음악가	현대음악음악가	대중음악	아시아음악	일반적개괄
역사	1988~1998	5	4	3	7	6	8	13	5	9	5	5	5	2
	1999~2008	0	2	0	3	6	14	16	7	9	14	3	4	2
이론	1988~1998	0	1	0	0	0	0	5	0	0	0	0	0	3
	1999~2008	0	1	1	1	1	3	4	0	0	0	0	0	4
합계		5	8	4	11	13	25	38	12	18	19	8	9	11
	미학, 철학, 편사학	음향, 인지	인접학문 (인문, 과학, 미술)	음악교육	악기	연주실제	음악과언어	음악사회학	예술경영	음악인류학	영화음악, 컴퓨터음악			
1988~1998	25	5	4	5	2	0	5	9	2	0	1			
1999~2008	9	12	3	18	1	2	3	7	3	2	3			
합계		34	17	7	23	3	8	16	5	2	4			

번역 (81)														
		고대	중세	르네상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일반적개괄	한국근대음악	현대음악음악가	대중음악	영화, 컴퓨터악	
역사	1988 ~ 1998	1	1	0	0	0	3	7	1	1	4	1	1	
	1999 ~ 2008	0	0	0	0	3	7	9	6	0	0	3	0	
이론	1988 ~ 1998	0	0	0	0	0	0	0	1	0	0	0	0	
	1999 ~ 2008	0	0	0	0	0	0	0	3	0	0	0	0	
합계		1	1	0	0	3	10	16	11	1	4	4	1	
		미학, 철학, 편사학	음향, 인지	인접 학문 (미술, 과학 등)	음악 교육	비평	페미니즘 비평	음악 사회학	음악 인류학 (월드 뮤직)	음악과 언어				
1988 ~ 1998		3	0	2	2	4	2	0	3	0				
1999 ~ 2008		2	2	1	0	0	2	3	2	1				
합계		5	2	3	2	4	4	3	5	1				

평론 (서평, 연주비평, 음반비평, 비평문 112), 지상강좌(34), 작가세계(15), 좌담(17), 신작악보(51), 자료(93), 기타(학술 대회 보고문, 독자란, 낭만 음악의 말, 시론, 기타 91)													
서 평 (37)	전통음악	근대음악사	한국작곡가	한국내음악학	고대	중세	19세기	20세기	음악사, 음악학개론	사회학	대중음악	미학비평	기타
1988 ~ 1998	3	3	2	5	1	1	1	0	2	1	1	2	2 (사전)
1999 ~ 2008	2	0	1	1	0	0	0	1	2	0	2	3	1 (무용)
합 계	5	3	3	6	1	1	1	1	4	1	3	5	3
연주비평 (38)	전통음악	서양음악	한국작곡품	컴퓨터음악	연주자	아시아	음반비평 (6)	전통음악	근대음악	창작음악	대중음악	영화	
1988 ~ 1998	1	10	8	0	1	0	1988 ~ 1998	1	0	2	1	1	
1999 ~ 2008	2	7	7	1	0	1	1999 ~ 2008	0	0	1	0	0	
합 계	3	17	15	1	1	1	합 계	1	0	3	1	1	
비평문 (31)	음악학계진단	음악인류학	전통음악	창작비평	아시아	대중음악	음악교육	방송음악	학술대회보고문 (7)	독자란 (2)	낭만음악의 말 (75)		
1988 ~ 1998	4	0	2	5	0	4	2	1	7	2	32		
1999 ~ 2008	4	3	0	1	3	2	0	0	0	0	43		
합 계	8	3	2	6	3	6	2	1	7	2	75		

지상강좌/ 음악학 에세이 (34)	한국 근대 사	음악 학	음향 · 인지	20 세기	음악 교육	자 료 (93)	낭만음악 자료, 편집후기	서적, 음반	한국 근대사 자료	음악 용어 한글화 자료
1998~ 1998	10	1	1	2	5	1988~ 1998	18	8	14	7
1999~ 2008	0	0	15	0	0	1999~ 2008	36	2	6	2
합 계	10	1	16	2	5	합 계	54	10	20	9
좌담(17)	전통	민족음악, 문화	대중음악	시론(7)	작가세계 (15)	신작악보 (51)				
1998~ 1998	2	14	1	0	15	11				
1999~ 2008	0	0	0	7	0	40				
합 계	2	14	1	7	15	51				

참고문헌

- 민은기의 역(버크홀더 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 (*A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울: 이앤비플러스, 2007.
- 이강숙(편), 『음악과 지식』, 서울: 민음사, 1987.
- _____, 『한국음악학』, 서울: 민음사, 1990.
- 조선우, 「한국의 음악대학은 변해야한다」, 『음악과 민족』 제21호, 민족음악학회, 2001, 9-15쪽.
- _____, 「한국음악학 협의회 창립이 절실하다」, 『음악과 민족』 제24호, 민족음악학회, 2002, 5-9쪽.
- 채현경 역(블래킹 저), 『인간은 얼마나 음악적인가』(*How Musical Is Man?*), 서울: 민음사, 1998(1973).
- _____, 「우리 음악을 위한 새로운 음악학-Integrative Musicology」, 『음악과 문화』 창간호, 세계음악학회, 13-30쪽.
- _____, 역(커먼 저), 『음악을 생각한다』(*Contemplating Music: Challenges to Musicology*), 서울: 궁리, 2006(1985).
- _____(편), 『새 음악학: 해체, 페미니즘, 그리고 통합』, 서울: 궁리, 2007.
- _____, 「다시, 실천하는 음악학으로」, 『음악과 민족』 제36호, 민족음악학회, 2008, 5-15 쪽.
- Bergeron, Katherine, “Prologue: Disciplining Music,” *Disciplining Music: Musicology and its Canons*(Bergeron, Katherine & Philip V. Bohlman e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 1-9.
- Bohlman Philip V., “Ontologies of Music.” *Rethinking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17-34.
- Burkholder, J. Peter, D. J. Grout, & C. V. Palisca, *A History of Western Music*(7th edition), New York: W. W. Norton, 2005.
- Cook, Nicholas & Mark Everist(eds). *Rethinking Music*,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1998. pp. v-xii, & 1-14.
- Geertz, Cliffor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London: Hutchinson, 1973.
- _____, “Art as a Cultural System,” *Modern Language Notes* 91, 1984. pp. 94-120.
- Koskoff, Ellen, “What Do we Want to Teach When We Teach Music? One Apology, Two Short Trips, Three Ethical Dilemmas, and Eighty-Two Questions,” *Rethinking Mus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 545-559.
- Nettl, Bruno, “A New Era: The 1990s and Beyond,” *The Study of Ethnomusicolog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alisca, Claude V., “Reflections on Musical Scholarship in the 1960s.” *Musicology in the 1980s: Methods, Goals, Opportunities*(eds. D. Kern Holoman & Claude V. Palisca), New York: Da Capo Press, 1982.
- Solie, Ruth A., “Introduction: On Difference,” *Musicology and Difference: Gender and Sexuality in Music Scholarship*(Ruth A. Solie e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p. 1-22.
- Tomlinson, Gary, “The Web of Culture: A Context for Musicology,” *19th-Century Music*, Vol.7, No.3(April 3, 1984), pp. 350-62.
- 보도자료: AMS Newsletter (August 2008), Vol. 38, no. 2, American Musicological Society.
- 신문자료: 서남표, 중앙일보, 2008년 11월 7일자.

검색어: 통합음악학, 새 음악학, 다시 생각하기, 심층적 연구, 학제적 연구

Abstract

**Searching for New Ways:
Implementing Musicology as an Independent Program**

Chae, Hyun Kyung

Musicology was introduced to our culture in the 1980s and seems to flourish as it is reflected in diverse academic journals and annual meetings. Contrary to its invigorated appearance, however, musicology as a discipline has not found a stable home in most Korean universities. Its stagnant status not only causes serious problems in music research but also hinders from creating a music culture of our own. Most musicologists working at several institutions as part-time instructors do not have stable environment nor time for both research and teaching. For about 10 universities have musicology programs, but many still belong to the composition department without its own administrative establishment. In this paper I review the changes in musicology as an interdisciplinary field in the West and advocate for the establishment of musicology program at our universities.

Since the 1980s musicology has gone through rapid and enormous changes in the West and now scholars of both historical and anthropological musicology seem to ‘tolerate’ the differences and ‘accept’ the importance of socio-cultural context of music after many years of de-construction process of ‘traditional’ musicology. The process of changes occurred first by anthropologically-oriented musicologists in the 1970s, then was re-invigorated by Joseph Kerman in the 1980s in historical musicology. After nearly 3 decades of arguing and struggling, the majority of new types of musicologists exposed to both fields are now “rethinking” musicology

and even asking such ontological questions as “music may be what we think it is, or it may not be.” They do not have the confident and authoritative voice that they once had as the leader of musical world.

In this paper I plea for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musicology program in Korean universities in order to create our own musical culture. In order to educate well-rounded musicians rather than mere technicians, we need to have curricula that enable students to think and understand the need to combine performance with historical and theoretical knowledge, and eventually to create their own musical culture. To implement new curricula, we need administrative power and thus I call for organizing the Association for Korean Musicologists that can together advocate the establishment of musicology departments at music schools around the country.

Keywords: integrative musicology, new musicology, thick description, rethinking, interdisciplinary approaches